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 일본 기자가 말하는 일본의 소재력(素材力)

올해 한국인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말 중의 하나가 '소재' (素材)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하고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불가결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등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이 낳은 결과다. 이제 소재(素材)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물질이 되다시피 했다.

정부가 소재산업 육성 방안 발표를 황급히 해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게 되고 많은 언론이 소재산업이 금방 일본을 따돌리고 자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한·일간 정치적 갈등에 산업 이슈가 따라오는 형국이 되다 보니 언론의 과잉 또는 과민 보도가 나오게 마련이다. 일본 언론도 입장만 다를 뿐 비슷한 행태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한국이 "우리도 해보자"고 나서는 소재 산업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마침 지난 11일 소재산업의 기술적 측면을 일본의 전문 기자에게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사단법인 NPI가 주최하는 '라이징 테크(Rising Tech) 포럼'에서 일본 산교(産業)타임스의 이즈미야 와타루(泉谷渉) 사장이 '닛폰의 소재력(素材力)'이란 주제로 강

연을 했다. 이즈미야 사장은 인사말에서 "얼마 전 이탈리아 기자가 죽고 나자 내가 반도체 분야를 가장 오래 취재한 기자가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를 43년 동안 취재했고, 소재 및 반도체 관련 책 27권을 펴낸 경력, 그의 전문지식과 정보력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왜 일본은 소재산업에 강한가?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의 강연 초점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맞춰졌다. 일본이 소재 산업에 강한 이유는 한국 언론에 많이 소개됐지만 일본 전문가에게서 직접 듣는 맛은 또 달랐다. 일본 소재산업에 대한 그의 소견을 요약하면 이렇다.

"일본은 소재 산업에서 세계 최강이다. 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들은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을 쏟는다. 일본인은 단순작업을 오래 하는 인내심이 강하다. 이익을 한 푼 못 내면서도 최고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인내한다. 소재 개발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의 싸움이다. 이런 소재산업의 속성이다."

도레이는 탄소섬유를 개발하는데 50년 걸렸고 지금은 보잉항공사에 막대한 물량을 공급하지만 40년 동안 이익 없이 개발만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참패했다 해

서 일본이 진 것은 아니다. 지금 일본이 가는 방향은 로봇, 센서, 소재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 국산화 정책에 이런 평을 했다. "한국정부가 소재산업육성을 위해 수천억 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몇십년간 이익 없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여담으로 100년 넘는 기업 얘기를 꺼냈다.

"음식점을 포함해 한국에 100년 넘는 기업은 몇 개인가. 서너 개라고 들었다. 중국엔 9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일본엔 10만개 있다. 이종엔 우리 집의 메밀국수집도 들어가지만, 45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 설립된 광산 업체가 전자소재를 만든다."

그가 하고 싶었던 본론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보완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와 기회를 잡으려는 중국의 산업전략을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굉장한 위험요소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중·일 제조업 가치사슬(Value-chain)은 일본의 핵심장비와 소재를 이용하여 한국이 반도체 등 중간재를 만들고, 이것을 중국이 사들여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체

제인데, 이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즈미야 사장은 "반도체는 50년간 연 10%씩 성장했다."며 앞으로 펼쳐지는 사물인터넷(IOT), 게임산업, 자율주행차 시대에 반도체 산업과 소재산업은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강연의 핵심은 일본의 강점인 소재산업과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산업이 서로 협력과 교류로 중국의 반도체굴기(屈起)에 대응해야 하는 게 상호 이익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공한 요인을 설명하는 이즈미야 사장의 결론이 흥미롭다. 일본의 소재산업 성공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는 신중성의 산물이고, 한국의 반도체 강국 성공은 "썩은 다리도 건너본다"는 과감성이 낳은 결실이라는 것이다.

이즈미야 사장의 강의는 일본인 시각에 기반을 둔 견해이긴 하나, 데이터를 통해 폭넓게 세계를 조망하는 기자의 객관적 시야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한국이 소재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이익이 안 나지만 오랜 시간 끊임없이 정진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은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열쇠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즈미야 사장의 논리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 특히 한·일 관계는 국민감정이 있어진 것이어서 한번 어긋나면 봉합이 힘들다. 결국 한·일 무역 갈등은 소재국산화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혜로 풀 수밖에 없어 보인다.

## 社 說

### 연휴기간 감염증 예방에 힘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움츠렸던 거리가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에 머물면서 바이라스 확산세가 누그러진 데다 날씨도 풀리면서 '춘래불사춘'이라는 얘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 거리를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주말 도심공원이나 유명 관광지엔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정도로 많아졌다. 감염 우려에 위축된 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서로를 경계하던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이어서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 들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별반 상존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도 그대로다. 특히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코로나19를 다시 크게 번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번 연휴 기간 김포와 제주 간 항공편 예약률이 80%를 웃돌고, 특히 연휴 첫날인 30일 김포발 제주행 노선 예약률은 93%에 달한다. 제주의 유명 호텔도 평균 90%대 예약률을 보이는가 하면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만실을 기록했다.

또 다른 대표적 관광지인 동해안 사정도 비슷해 강릉, 속초, 삼척, 양양 등지의 리조트와 대형 숙박업소도 연휴 예약이 거의 찼다고 한다. 침체된 경계를 살리기 위해선 반길 일이지만 이번 연휴가 오히려 민관의 의기투합으로 어렵사리 일궈낸 방역 성과를 거꾸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끝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만큼 세밀한 전략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전파력이 강한 데다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언제든 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꾸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 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석가 탄신일 대비 화재 특별경계근무

보성소방서는 4월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은 것을 예상됨에 따라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 소방차량, 인원 사찰 고정배치 등 화재 특별경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사찰관계자에게 연등 및 전기 등 화기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귀중한 문화재 보호 및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만일의 사고시 자체 소방시설 이용(소화기등)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행정 지도 할 예정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사찰을 찾은 방문객에게 몇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

첫째, 전통사찰 주변에서 담배 흡연 행위 절대금지하고 추락 위험성이 있으니 지정된 장소로 이동 해야한다.

둘째, 사찰에 연등걸 때 잠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먼저 안전을 생각하기 바란다.

셋째, 사소한 인화물질을 소지 사찰을 방문할 경우 가연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자체 바란다.

홍신욱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